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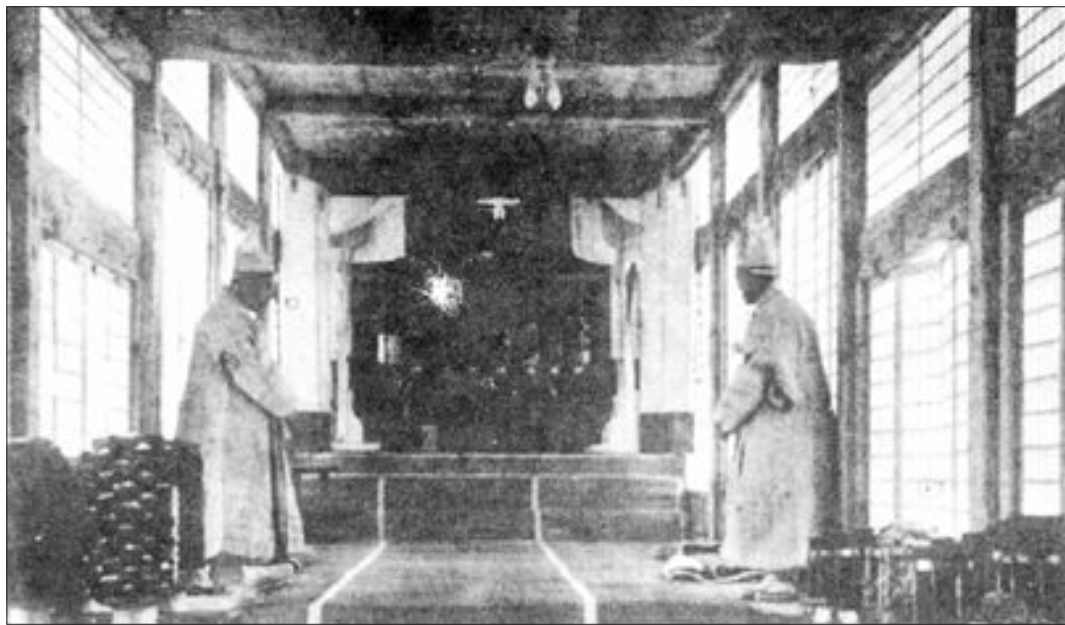
북스

Books

국왕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교육 받았나

조선 국왕의 일생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엮음



1919년 입관 후 5개월만에 국장을 치른 고종황제의 빈전(빈소) 모습. 국장 기간 동안 후계왕은 빈전 옆 여막에 거처하면서 수시로 찾아와 곡을 한다.

TV 사극을 통해 친숙한 조선 시대 국왕은 최고의 권력자였다. 과연 우리는 조선 시대 국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 엮은 '조선국왕의 일생'은 수많은 자료와 학술 연구를 바탕으로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왕의 일생을 재구성, '지존(至尊)이면서 최고의 문인이었던' 왕의 실체를 보여주는 책이다.

책은 왕이 태어나는 장소, 교육 절차, 왕비의 간택, 왕의 업무, 왕이 갖춰야 할 교양의 종류, 국왕이 먹는 음식, 왕실의 잔치, 왕의 죽음 등을 세밀히 보여준다.

'규장각 금요시민강좌'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어 책이 쉽게 읽힌다.

역사학, 문학, 국악, 풍수지리학 등을 전공한 한국학 전문가들이 집필한 책은 '왕은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부터 시작된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막강한 존재'였던 국왕을 규제하여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하는 방법을 고안했고 규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국왕의 모든 말과 행동을 철저히 '기률'하는 것이고, 하나는 신하를 스스로 삼아 평생토록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다.

세자로 책봉된 왕자는 학문과 문화가 중심이 되는 교육을 받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덕성'을 함양하는 것이었고 활쏘기, 글씨 등도 배웠다. 세자는 매달 평가시험을 치르고, 매일 전날 배운 것을 체크하는 쪽

지 시험도 치러야 했다.

입법·사법·행정권을 모두 장악한 왕의 업무량은 방대했다. '소의간식(宵衣旰食·입금이 국정을 수행하느라 새벽에 옷을 입고 일을 시작해 한밤에 밥을 먹는다는 뜻)'이라는 말이 이를 잘 대변한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 뿐 아니라 수많은 왕실 제사도 주도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조선국왕은 예술가이자 문인으로서의 역할도 갖춰야 했다.

'왕의 장례와 왕릉'은 정치적인 수밖에 없는 왕의 죽음을 다룬다. 새로운 왕의 즉위는 장례와 맞닿아 있다. 세자가 즉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선왕의 장례를 치르는 일이다.

저자는 장례 절차, 그 이면의 정치적 움직임, 왕의 묘소와 관련된 풍수 및 사대부들의 논쟁을 살피

고, 조선 왕실의 사당인 종묘의 이모저모를 소개한다.

책은 또 왕의 반쪽인 왕비가 탄생하는 과정인 혼례와 궁궐의 또 다른 일원인 궁중여인들이 삶도 세세히 다루고 있다.

그밖에 왕이 공식적으로 술 마시는 날이었던 '궁중 잔치의 종류와 변천', '조선 왕실의 건강법' 등 소소한 일상까지도 살펴볼 수 있다.

다양한 궁중 관련 유물 도판 자료를 활용해 읽는데 도움을 주며 책 마지막에는 참고 문헌과 함께 더 읽어야 할 책들을 수록했다.

한편 이번 책은 '규장각 교양 총서'의 첫번째 권으로 기획됐다. 앞으로 '조선 양반의 생활' '조선 여성'의 일생 '조선의 소수자들'이 출간될 예정이다.

(글양리·1만9천800원)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2차대전 상처 안고 태어난

20만명 아이들 생생한 증언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점령군인 독일군과 프랑스 여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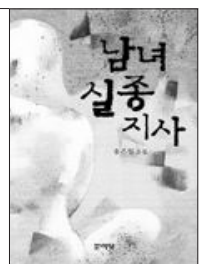
프랑스 언론인 출신 장폴 피카페르가 집필한 '저주받은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불행을 안고 있었던 20만명 아이들의 생생한 증언을 실고 있다.

책은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독일놈의 자식' '수치스러운 아이' '매춘녀의 아이'라는 망에를 짊어지고 반세기 동안 숨어 살아야 했던 다니엘 북셀, 자니 세베스트르 등 5명의 생생한 증언을 실고 있으며 2부에서는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사건을 통해 프랑스 여성이 겪어야 했던 아픔을 보여준다. <중앙북스·2만원>

/김미경기자 mekim@

남녀실종지사

송은일 지음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사라진다면.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소설가 송은일의 두 번째 소설집 '남녀실종지사'는 사라져 버린 누군가를 추억하는 인간의 외로움을 그리고 있다.

누군가의 실종은 남은 자들의 삶에 균열을 낸다. 익숙한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짐으로써 남은 자들이 겪게 되는 충격과 두려움이 책 곳곳에 숨어 있다.

표제작인 '남녀실종지사'에는 자살로 생을 마감한 연인의 빈자리를 건너야 하는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장한다. 우연히 찾은 바다에서 만난 남자가 사라져 버린 뒤 주인공은 더욱 깊은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

잃어버린 사람의 빈자리를 지우기 위해 찾은 여행지에서 제3자의 실종을 통해 더욱 절실하게 연인의 실종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또 중편 '여우비거나 여우벌레거나'는 죽은 이의 한을 풀어주는 영혼 결혼식을 소재로 삼았다. 자신을 짝사랑 하다 자살한 남자와 이 남자의 혼을 달래기 위해 치러지는 영혼 결혼식을 담당하게 풀어내고

영혼 결혼식에 참석하는 주인공을 통해 실종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나

다.

다른 작품 속에서도 실종은 빈번하게 등장한다.

'눈 내리는 날의 숨바꼭질'은 금속 공예 작가인 남편의 실종 이후 남편의 삶을 더욱 진지하게 들여다 볼 수 있게 된 아내의 이야기를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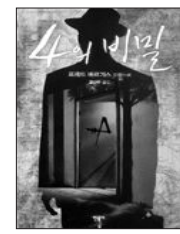
또 '구토'는 스스로 마음 속에서 남편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한 여자를 다룬다. 무기력한 현재의 남편을 떠나 꿈을 쫓는 멋진 남자였던 과거 남편의 흔적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과정을 담았다.

이들 소설은 실종의 원인이나 이유를 밝혀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남겨진 자들의 삶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등장인물들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이 '삶의 순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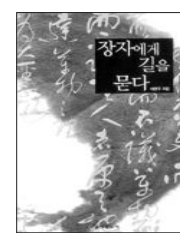
(문이당·1만원)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새책



▲4의 비밀=고고학자 출신인 프랑스 추리소설의 여왕 프레드 바르가스의 신작으로 중세 유럽을 훑으며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페스트가 21세기에 되살아 난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파리의 한 마을에 아파트 문들마다 똑같이 뒤집힌 '4'자가 검은색 페인트로 그려지고, 유일하게 4자가 그려지지 않은 집에서 시체가 발견된다. <민음사·1만4천원>



▲장자에게 길을 묻다=소설가 이병주가 생전에 한 월간지에 연재 했던 '소설 장자'를 묶어 펴낸 책으로 동서양 철학과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했던 저자의 글쓰기를 엿볼 수 있다. 저자는 당대 사회의 시대상과 전근대시대를 주유하던 맹자를 비롯한 술한 사색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장자라는 인물을 재발견하고 있다. <동아일보사·1만3천원>



▲인간의 위대한 스승들=한경운동기인 제인 구달, 작곡가 데이비드 숄저, 연극배우 레이철 로젠탈 등 하는 일은 다르지만 동물들과 진정한 만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필자들은 자신이 기르는 새와 고양이 쥐가 얼마나 사랑스러우니 소개하고, 동물의 집단행동이나 언어에 대한 연구결과도 소개한다. <비이북스·1만4천원>



▲일음공주=스웨덴의 작고 아름다운 여친 피엘바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차세대 예거서 크리스티' 카밀라 레크베리의 범죄소설. 추운 겨울 아침, 피엘바카 얼어붙은 시체로 한 여자가 발견되고 그녀의 죽음을 통해 25년간 감춰졌던 비밀과 인간의 어두운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살림·1만2천원>



▲신라를 뒤흔든 12가지 연애스캔들=장편 소설 '선덕여왕'의 작가 박은영이 신라 시대 여인들의 도발적인 연애담을 재구성했다. 짧은 애인과 달아난 버린 진흥왕의 두번째 왕후 승명, 성상남으로 남편을 출세시킨 옥두리, 자신과 딸, 손녀까지 후궁으로 바친 법흥왕의 애첩 옥진 등의 이야기가 실렸다. <랜덤하우스코리아·1만2천원>



▲두심애=인간에 대한 탐구에 몰두해온 소설가 정찬의 새로운 작품집이다. 교활의 생애와 기구한 운명 속에 스러져간 한 소년의 이야기를 써내려간 표제작을 비롯해 강마른 여자와 100kg이 넘는 거구의 여자가 등장하는 '바비 인형', 험릿역을 맡게 되면서 정말 험릿이 된 배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는 누구인가' 등 7편이 실렸다. <문학과 지성사·1만원>



▲과학을 배반하는 과학=인간-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 등으로 유명한 과학 칼럼니스트 에른스트 페터 피셔가 들려주는 과학을 둘러싼 오해와 편견 100가지다. 상식과는 다른 과학, 현실속의 과학을 비판한다. 교양으로서의 과학을 성찰하다 등 3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해나무·1만5천원>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자갈치동 714-73 [2층][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자산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제블로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무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해 실시간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

근린시설/원룸	대표이사 010-7570-7525	속삭이실/상가	대표이사 010-7570-7525	공장/보지	대표이사 010-7570-7525
소재지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미래의 가치를 창조하는
수완 코리아랜드 공인중개사 사무소

☎ 062)951-6800
H.P. 010-3666-8949

수완지구

수완 롯데마트 옆
팰리스타워빌딩
중앙메디컬빌딩 (분양임대)
뉴타운 빌딩

상업용지, 점포, 원룸용지 매매임대
"급"매물접수,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대인동상일부동산
☎ (대인)223-1140, 5210 ☎ 011-802-2532
(광주은행 신봉점 옆,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권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임대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료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